



# 아이의 얼굴에 담긴 평화를 보자

박동규/서울대 국문과 교수

**딸** 이 여섯 살 때였다. 유난히 부산스러운 나  
이여서 어찌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  
도 책을 들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.

딸이 곁에 붙어앉아 '아빠' 하고 불러대기 일쑤  
였다. 부엌에서 일하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 
있다가 심심하면 나에게로 와서 내 등에  
올라타곤 했다.

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 일  
찍 목욕탕에 다녀와 보니 딸은  
마루에 엎드린 채 잠이 들어  
있었다.

내내는 외출하고 아무도 없  
는 집에서 혼자 견디다가 잠이  
든 것 같았다.

오랜간만에 딸의 잠자는 얼굴을 보  
았다. 모든 걱정과 근심을 벗어나서 입을 오물거리  
고 자는 딸의 모습은 평화로웠다. 그리고 이 평화로  
움은 세상의 물욕이나 출세나 야심을 떠나 살아가  
는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원형의 아름다움을 지니  
고 있었다.

흔히 자는 아이의 얼굴을  
보면서 '이 어린 것이 내가  
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  
가지' 하고 걱정을 하게 된다.

아니면 자고 있는 어린 것 머리맡에서 '이 아이  
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이들을 고생시키지 않고  
살게 하지' 하고 근심을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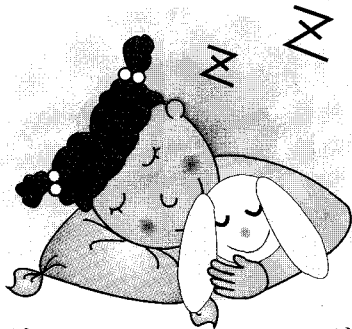
그러나 이러한 걱정과 근심은 아이로 인해서 생  
겨나는 것은 아니다.

'아이가 있기에' 하는 것은 나와 아이가 하나의  
핏줄로 연결된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 자신

의 문제일 뿐이다.

오히려 아이의 얼굴에 담긴 평화를 보면서 이  
평화로운 모습이야말로 내가 살아보고자 하는 삶의 꿈  
이 되고 이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  
빠가 아프도록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.

'아이 때문에 고생한다'는 말은 버려  
야 한다.



자식은 바로 나 자신이기에  
나 자신이 지닌 삶의 목표가 평  
화로운 안식의 세계이기에 이  
를 만들고 지켜나가고 가꾸기  
위해서 고생을 하는 것이다.

평화는 하늘에 걸려 있는 별  
이 아니다. 우리들 마음에 피어있는  
인간다운 삶의 희망이다.

우리가 성장하면서 세속에 얽매며 인간답지 못  
한 모양으로 바꾸어졌기에 얼굴에 평화로움을 잃게  
된 것이다.

그러기에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자. 그리고 그  
평화로운이 온 가정에 햇빛처럼 퍼지게 하자. 말 한  
마디, 행동 하나라도 조심하자. 잔잔한 호수  
에 돌을 던지면 잔잔함이 깨뜨  
러지지 않는가.

살아가는 동안 받은 짜증을  
아이앞에 쏟아내고 아이 때문에  
힘들다고 생각하면 아이가 불쌍하지 않는가.

특바로 잠자는 아이의 얼굴에 담긴 평화, 그 평  
화를 꿈꾸기에 어렵게 살아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 
알아내야 할 것이다. 평화는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  
의 꿈이어야 한다.

평화는 하늘에 걸려 있는 별이 아니다.  
우리들 마음에 피어있는 인간다운 삶의 희망이다.